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李美淑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문제제기
- 지배엘리트의 특성
- 북한 군부엘리트의 성향 분석
- 결론 및 전망

1. 문제제기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통제원리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쇠퇴하였다면 북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체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변화과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각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이 의도된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의 유산, 지배엘리트의 특성, 정치적 대안세력의 존재여부 등의 복합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중에서 지배엘리트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을 하였지만 소련의 구지배엘리트들이 러시아의 지배엘리트로 탈바꿈한 사실에서, 지배엘리트들의 성향을 분석해야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련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변화를 주도한 세력은 소비에트 당관료 출신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들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련이 선택한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서 소련군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었다. 1991년 8월 소련군부의 보수세력 일부가 개혁을 반대하는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소련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미비하였다. 이에 비해 체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로 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¹⁾ 김정일 집권 이후 핵심 권력기구에서 군부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정엘리트와 비교해 볼 때 급증하였고, 1998년 이후 북한의 권력서열을 보면 군부인물들이 권력의 핵심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먼저 북한 지배엘리트의 특성을 소련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엘리트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북한 지배엘리트가 갖는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북한 지배엘리트의 특성으로 부각된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즉 사회주의국가의 전형인 소련과 북한의 지배엘리트 특성을 비교하여 소련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주도세력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고, 소련의 체제전환시 나타난 지배엘리트 간의 연속성

1)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출판사, 2000, 서문 참조.

2) 『연합뉴스』, 2003년 1월 9일.

에 근거하여 현 북한체제의 핵심 지배엘리트인 군부엘리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 때 톨리(Tilly),³⁾ 프리먼(Freeman)⁴⁾ 등의 자원동원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자원동원이론의 기본과정은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은 축적된 사회적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톨리의 이론은 정부의 합법적인 정치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경쟁자들, 그리고 거기에 진입하려는 체제 밖의 도전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집합행동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있다.⁵⁾ 이를 군부에 적용할 경우 경쟁자와 도전자가 같은 체제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부의 행위가 체제 밖의 행위표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적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톨리는 혁명을 복수주권의 상황—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통제해야 할 영역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합행동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⁶⁾ 군부의 행위는 정부가 통제해야 할 영역이 되므로 자원동원이론의 적용이 무방하리라고 본다. 프리먼은 통합의 정도가 높고 참여자들 사이의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연결망에 의한 동원을 통해 집합행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⁷⁾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지만 군부 내에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불만과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볼 때 북한 군부엘리트들 내부에도 소련의 지배엘리트처럼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불만을 유발시켰던 군부 내 갈등사건도 몇 차례 있었고⁸⁾ 지금도 정책노선의 차이로 갈등이

3) 찰스 톨리, 양길현 외 공역,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프레스, 1995, 255~293쪽.

4)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01쪽.

5) 찰스 톨리, 앞의 책, 269~274쪽; 임희섭, 위의 책, 89쪽.

6) 임희섭, 앞의 책, 90쪽.

7) 임희섭, 위의 책, 101쪽.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군부는 아직까지 내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자원동원이론으로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톨리, 프리먼 등의 자원동원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군부는 대화채널(의사연결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군부는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셋째, 군부는 정치세력을 조직하고 운영할 지도부가 있는가? 넷째, 군부의 뜻을 따라줄 참여자가 있는가?라는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군부엘리트의 내부성향을 규정해 보았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서 군부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도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북한의 법·규정, 김일성·김정일 문헌 등 1차 자료와 북한연구 단행본, 각종 분석논문 등 2차 자료이다. 특히 군부엘리트의 구성과 배경 등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 및 통일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자료와 연합뉴스 등의 남한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2. 지배엘리트의 특성

지배엘리트의 특성을 살피기에 앞서 지배엘리트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릇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엘리트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지배엘리트의 범위설정에도 뚜렷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지배엘리트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엘리트를 이해하는 것은 체제와의 상관관계와 변화경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8) 군부 갈등사건으로는 1969년 민족보위상 김창봉 관련 사건, 1980년대 오진우파와 오극렬파 간의 파벌싸움, 1995년 초 6군단 사건, 1992년 말 프룬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메이어(A. G. Meyer)는 소련의 지배엘리트가 산업 및 행정적 집행부, 군 및 안보관리 담당관, 지도적인 과학자, 여론형성자(사회과학자와 언론인 포함), 그리고 당 집행부를 구성하는 전문적인 정치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 타투(Michael Tatu)는 군대, 경찰, 중공업관리자, 당관료 및 경제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당관료와 경제관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전체주의 이론가들은 높은 권력, 높은 사회적 지위 및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능력을 지닌 당을 중심으로 한 특권계층을 지배엘리트로 보았다.⁹⁾ 소련이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제시된 지배엘리트들은 바로 소련사회에서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였다.

소련에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차 3개의 사회계층만이 공표되어 있으므로¹⁰⁾ 새로운 계급인 노멘클라투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조차 은폐하였다.¹¹⁾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 용어는 ‘가장 중요한 직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서 소련사회의 특권계급을 의미하였다.¹²⁾ 노멘클라투라가 직업적으로 지도층에 해당하고,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인텔리겐차의 집단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북한에서 지배엘리트란 지배계급의 성원이며 간부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인, 관료, 군인, 지식인, 전문가집단 등

9) 신승권, 「소련 계급구조에 있어서의 정치엘리트의 특권」, 『중소연구』 10권 2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6, 58~59쪽.
 10) 신승권, 위의 논문, 45쪽.
 11) 『소련 대백과사전』에 노멘클라투라라는 항목은 있으나 학문적 용어로서만 해석되어 있을 뿐이다. 『소련 대백과사전』에서는 노멘클라투라의 의미를 첫째, 과학이나 기술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나 용어의 체계, 둘째, 상징의 추상적이고 제한된 체계로서 대상의 의미를 지칭하기 용이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련에서 노멘클라투라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12) 서재진 외 3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미래인력연구소, 1999, 40쪽.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북한에서 간부란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 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로 규정되고 있다.¹³⁾

따라서 지배엘리트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당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권계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 1인 독재체제의 특성상 지배엘리트의 존재가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김정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들은 김정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근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특권층으로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 소련의 지배엘리트

소련에서의 지배엘리트는 예외 없이 당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소련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곧 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공산당이 최고의 지위를 점하게 되며 그 상설기구인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권력의 핵심세력으로 볼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공산당과 정부기관부터 모든 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 주요 직책의 목록(nomenklatura) 내지 명단을 관리하였고, 이들 직책에 대한 인사권도 독점적으로 행사하였다. 소련에서는 바로 이들 직책에 임명된 자가 지배엘리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노멘클라투라로 통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¹⁴⁾ 이들은 지배엘리트 내부의 후견관행으로 지배엘리트의 반열에 들어갔으며, 그들의 지위상승도 사실상 내부의 후견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멘클라투라는 노멘클라투라 출신에 의해 충원되고, 지배계층이 지니는 고립성과 보수성으로 인하여

13) 북한 『조선말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64쪽.

14) 정한구, 「러시아의 지배 엘리트: 구엘리트의 변신과 체제전환」(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01), 세종연구소, 1999, 22~23쪽.

비노멘클라투라에서 노멘클라투라로 상승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지배엘리트는 주거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일반 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리고 지배엘리트 내의 지위에 따라 차등화된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지배엘리트는 정치국 정위원과 서기직을 동시에 지닌 자, 정치국 정위원, 정치국 후보위원과 서기직을 가진 자, 정치국 후보위원, 서기국원으로 구성되는데 열거된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졌다.¹⁵⁾ 지배엘리트들 간에 서열이 생기는 것은 지배엘리트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경로에 따라 엘리트의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전문가나 양자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 즉 테크노크라트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이념가가 되는 경우보다 권력이 약하다. 군·경 출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승진에 있어서도 정치국 정위원과 서기직을 동시에 지니는 지배엘리트, 즉 핵심 지배엘리트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표 1>과 같이 1981년 제2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중앙위원회의 구성비는 1976년 제25차 당 대회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구성비를 보면, 노동자는 3%, 농민은 0.3%에 불과했다. 한편 당관료의 비중은 42%, 정부관료는 32%, 군인 7%, 하급 외교분야 5.5%, 경찰 0.5%, 작가 및 문화계 2%, 과학자

<표 1> 제2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비¹⁶⁾
(단위: 백분율(%))

당 관 료	정부/경제관료	노조간부	컴 소 물	군 인
44.8	29.8	1.6	0.3	6.9
경 찰	법 조 계	이념·문화·과학	하급외교	노동자·농민
1.3	0.6	5	4.7	5

15) 안병만, 「소련 권력엘리트의 구성과 내부정치」, 『중소연구』 10권 2호,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1986, 78~79쪽, 91쪽.
16) 신승권, 앞의 논문, 1986, 60쪽.

3%, 노조간부 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련의 지배엘리트는 초기부터 전문가이던 이론가이든 간에 당에 밀착한 정치엘리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군부엘리트는 지배엘리트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지배엘리트에 포함된 군부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군사아카데미 및 군수산업기술학교·군사정치학교→군, 군수산업, 군 정치업무→국방부→정치국의 경로를 거쳤고, 군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한다는 면에서 그 권한도 컸다. 그러나 지배엘리트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적었다. 그것은 당에 대한 군의 종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부의 지나친 세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군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방법으로 그레츠크, 우스티노프, 소콜로프, 무즈하바나드제의 경우처럼 최소한 군부의 1명은 정치국 내에 끌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당에 밀착된 지배엘리트의 특권이 증대됨에 따라 소련사회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지배계급인 노멘클라투라는 고립화, 보수화되었다. 그들은 소련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내정개혁기간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러시아의 시장경제 이행으로 구조적인 경제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과정이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이동 경향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노멘클라투라는 오히려 소련에서 축적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유화’를 통해 시장체제로 신속히 자리를 옮겨 러시아 지배엘리트의 상층부를 차지하였다.¹⁸⁾

이처럼 소련이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연속성이 나타났다. 옐친 대통령이 실권을 장악한 1991년 9월부터 1994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중앙 및 지방의 지도급 인사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옐친의 친위집단에 속하는 정계 지도자의 75%, 경제계

17) 안병만, 앞의 논문, 81쪽.

18) 서재진 외 3인, 앞의 책, 52쪽.

지도자의 61%가 노멘클라투라로 통칭되는 소련의 엘리트 출신으로 나타났다.¹⁹⁾ 그러나 구체제에서 최상위 지도급에 속하던 인사들의 충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으로써 구엘리트가 새로운 지배엘리트로 충원되는 과정에서 구엘리트 내의 소장층이 대거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구지배엘리트가 충원되는 과정 중 이들 내부에서 적지 않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전환기 러시아의 지배엘리트는 체제이행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지배엘리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구엘리트는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체제로 적절히 적응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적응은 구지배엘리트들의 국가사유화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연속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즉 러시아의 지배엘리트로 대거 충원된 소장파의 경제관료이자 전문가들은 비록 뿌리는 노멘클라투라에 있었지만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들 보다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 북한의 지배엘리트

북한은 계급없는 사회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처럼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계급이 존재한다. 그들이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이다. 북한의 지배엘리트 역시 폐쇄적인 기득권집단이다. 출신성분과 가족적 배경으로 인해 피지배계급인 적대계급과 동요계급의 상승이동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특혜를 누리고 있고 그 특혜가 세습된다는 측면에서 체제친화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며 현 체제가 유지되기를 선호하는 집단이다.²⁰⁾

19) 정한구, 앞의 논문, 9쪽.

20) 서재진 외 3인, 앞의 책, 175쪽.

이러한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당엘리트, 정부엘리트, 군부엘리트로 대별할 수 있는데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의 주요 직위에서 김정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지배엘리트는 서기실(비서실)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비서국 인사들로 김국태(간부담당), 정하철(선전담당), 최태복(과학교육비서) 등이 있는데, 김정일의 당중시정책으로 김정일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 정부엘리트들은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나,²¹⁾ 전문가들이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기획·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홍성남(총리), 조창덕(부총리), 백남순(외무상) 등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정부엘리트들이다.

군부엘리트는 1970년대에 들어 김정일 권력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군부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권 확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각되었다. 김정일은 1975년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하여 군부내 기층부분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아울러 김정일은 군부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선물 하사와 장군 진급 등을 통해 군권 장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의 유일적 권력체계 강화와 김정일 권력승계 구축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당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부터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 군부엘리트들이 당 정치국 정치위원에서나 서기국 비서직에서 점차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²²⁾ 5차 당 대회에서 44%를 차지했던 정치국에서의 군인비율은 6차 당 대회에서 35%로 감소하였고, 5차 당 대회에서 23%였던 중앙위원회에서의 군인비율은 6차 당 대회에서

21) 이석수 외, 「북한군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보연구시리즈』 제3집 3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5~8쪽.

22)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 역할: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1995, 55~62쪽.

19%로 하락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군부의 완전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에 들어서 중앙위원회 정위원에서의 군부 출신 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군부 출신 비율이 1980년대의 18.9%를 거쳐 22.0%로 증가하였다.²³⁾ 이는 군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되는 군부를 무마하기 위하여 군부출신들을 우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을 당으로 흡수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당·군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이후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군부의 위상이 유례없이 강화되었다.²⁴⁾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적 위협으로 인하여 군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선 핵심 권력기구에서 군부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기구가 된 국방위원회의 구성원 10명 중 7명이 고위급 현역 군인출신이었고 최근 2003년 9월 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선발된 국방위원회의 구성원도 9명 중 연형묵과 전병호를 제외한 7명이 현역군인이다.²⁵⁾ 그리고 1980년과 1993년 이후로 당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의 개최가 전무(全無)하고 정치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통치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국에도²⁶⁾ 김정일을 비롯하여 리하일, 김익현, 오극렬

23) 전현준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통일연구원, 1992, 131~132쪽.

24)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7~438쪽.

25) 국방위원회 위원은 차수 조명록, 차수 리용무, 차수 김영춘, 차수 김일철, 최룡수, 백세봉, 연형묵, 전병호이다. 최룡수와 백세봉의 계급은 북한의 문헌과 방송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군인인 경우 계급을 밝히는 것이 관례인데, 북한이 계급을 밝이지 않고 공개한다는 점을 들어 최룡수와 백세봉은 군부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03년 9월 3일).

등의 현역군인이 포진하고 있다.

그 외에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경우에도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 687명 중 군부인사가 111명으로 16.2%를 차지했는데, 이는 9기의 62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된 것이다.²⁷⁾ 2003년 8월 3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군의 핵심 보직자들은 대부분 대의원직을 유지함으로써 군 중심의 권력구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²⁸⁾

또한 통상 북한 권력변화의 흐름을 가늠해 보는 척도로 활용되는 북한 주석단(主席團) 서열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군부인사들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장의위원회 서열에서는 조명록을 비롯한 군부인사들이 30위권 밖에 있었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서열이 급상승하였다. 2000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조명록이 자리잡았고, 홍성남 내각총리, 김영주·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다음으로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이 뒤를 이어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국방위원 전원이 권력서열 20위내에 위치함으로써 북한 군부가 권력핵심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²⁹⁾ 이에 비해 2002년 들어서도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전병호, 계웅태, 한성룡이 10위권 내외에 위치함으로써 조선노동당 간부의 서열이 군간부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표 2>북한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9월 9일 정권창건 행사의 주석단 서열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26) 전계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식활동 및 통치체제 특징분석」, 『군비통제자료』 33,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3, 279~281쪽.

27) 국방정보본부, 『북한전략정보자료집』, 2003, 41쪽.

28)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 결과』, 통일부 홈페이지의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29) 최성, 『김정일과 현대 북한체제: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방송출판, 2002, 306~360쪽.

<표 2> 북한 정권창건 행사시 주석단 서열

서열	1998	1999	2000	2002	2003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이종옥	홍성남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4	박성철	한성룡	홍성남	박성철	박성철
5	김영주	김일철	전병호	김영주	김영주
6	전문섭	이용무	한성룡	홍성남	박봉주
7	조명록	백학림	계응태	김영춘	김영춘
8	김영춘	김철만	김일철	김일철	김일철
9	김일철	최태복	이을설	전병호	연형목
10	이을설	양형섭	백학림	연형목	이용무
11	홍성남	최영림	김철만	한성룡	전병호
12	전병호	김기중	최태복	계응태	한성룡
13	연형목	김익현	양형섭	이용무	계응태
14	이용무	김기중	최영림	이을설	김철만
15	계응태	이하일	김중린	백학림	최태복
16	한성룡	박기서	김익현	김철만	양형섭
17	양형섭	이종산	이하일	양형섭	김국태
18	최태복	김룡연	곽범기	최태복	정하철
19	김철만	곽범기	김윤혁	김국태	김중린
20	최영림	김	박기서	정하철	장성우
21	김국태		김룡연		곽범기
22	김기남				노두철
23	김용순				전승훈
24	김중린				김윤혁
25	홍석형				이을설
26	백학림				백학림
27	김익현				김익현
28	전재선				이종산
29	박기서				김룡연
30	이종산				이하일
31	김룡연				박기서
32	이하일				전재선
33	조창덕				
34	곽범기				
35	김윤혁				

출처: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관련호.

※ 군부엘리트는 음영처리하였고 2001년도에는 구체적인 주석단 명단을 명시하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음.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로동당의 지배엘리트들은 과거와 달리 권력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체제가 김정일과 비서국의 수직적 체계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당의 최고권력기구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군부엘리트는 핵심권력기구로 부상한 국방위원회와 비서국에 포진함으로써 지배엘리트로서 권력의 핵심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부가 각종 권력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련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³⁰⁾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군부성격을 감안할 때, 특수한 경우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소련과 북한은 지배엘리트가 당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 엘리트층원과정은 국가가 철저하게 계획하는 폐쇄적인 기득권 집단이라는 점 등에서는 유사하나 군부엘리트의 역할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군부엘리트가 지배엘리트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소련과 달리 북한에서는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맞물려 군부엘리트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당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제로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의 군 실력자로서 북한체제를 지배함으로써 군부엘리트가 김정일 개인에게 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치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탈린이 이용했던 테러기구처럼 말이다.³¹⁾ 그러나 소련은 스탈린시대 이후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당 중심체제를 서서히 회복시켜 갔다. 하지만 북한은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련이 버린 스탈린체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령중심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령의 당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국가들이 중시하는 당 우위의 기능을 외면한 채 군부엘리트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30) 김진무,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 『군비통제자료』 31,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2, 58쪽.

31) 정한구·문수언 외, 『러시아 정치의 이해』, 1995, 132~133쪽.

따라서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입각하여 소련 지배엘리트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북한체제가 소련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과정에서 연속성을 보인 소련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북한의 핵심적인 지배엘리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군부엘리트가 변화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수령 개인에게 밀착되어 있는 북한의 군부엘리트가 변화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3. 북한 군부엘리트의 성향 분석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세대는 빨치산 세대 혹은 혁명 1세대로 불리우는 그룹으로 1930년대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동료이거나 아니면 당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김일성의 호위병이나 전령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정권 수립이래 군 최고직을 차지해 왔으며, 당서열에 있어서도 50위권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70세를 넘은 사람들로 그 동안 대다수가 사망하고 요직에 남아 있는 이들은 리을설 원수, 조명록 차수, 백학림 차수, 김익현 차수 등 10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 및 군계급은 높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북한체제에서 원로대접을 받으면서 김정일 체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6·25전쟁에 참가한 경험으로 미국과 남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개혁·개방의 최대 걸림돌이지만 김정일 정권 유지에 가장 필요한 세력이기도 하다.³²⁾ 그래서 김정일은 이들이 비록 현대적인 군사지식이나 전략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옹호에 대한 사상무장이 철저하다는 점, 김정일이 강조했던 고난의 행군정신을 경험한 실제인물이라는 점, 빨치산운동이나 6·25전쟁 수행경험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인해

32) 『조선일보』, 2003년 7월 9일.

‘혁명선배를 존대하자’는 기치하에 군 승진 인사 때마다 이들을 중용하고 있다.³³⁾

제2세대는 빨치산 운동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1세대의 후예로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김일성은 북한 실권자가 되면서 1947년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우고 만주의 빨치산 후예를 데려다 교육하여 북한의 핵심인물로 양성하였다. 이들은 선대가 군인이 있고 만경대학원 자체가 인민무력부 산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군부엘리트로 성장하였다.³⁴⁾ 이들은 만경대학원을 졸업한 1950년 중반 이후 대개 소련이나 동구지역의 군사학교에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적인 공산주의 군사전략과 전술교리에 밝은 사람들이었다. 혁명 2세대는 자연소멸로 인한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군부엘리트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2세대의 대표주자로는 김영춘 차수, 김일철 차수, 리하일 차수 등이 있다.

제3세대는 북한에서 군사교육체제가 갖추어진 1960년대 이후 북한내 주요군관학교인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책공군대학, 김정숙해군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특히 주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대장이상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당 중앙군사위에 소속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북한군 3세대 엘리트를 구성한다. 이들은 혁명 1세대나 혁명 2세대와 같이 김일성-김정일과 개인차원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로 맺어지지 않는으나 북한의 자기식 군사전략과 주체사상하에서 토착군인으로 양성된 사람들이다. 주로 50대인 이들은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군 승진인사를 통해 발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김정일 친위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장, 군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의 실병력을 장악하고 있다.³⁵⁾ 전 로동당 비서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김정일

33) 「혁명선배를 존경하는 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년 12월 25일.

34) 『동아일보』, 1994년 8월 14일.

35) 김병조,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 변화와 전망」(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 1997, 60~61쪽.

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3세대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최근에는 3세대들이 김정일의 측근 수행요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상당한 실세로 추정되고 있다. 원웅희 차수, 리명수 차수, 박재경 대장 등이 대표적인 3세대 주자이다.

군부엘리트의 구성을 볼 때, 김정일은 혁명 1·2세대에 비해서 너무 젊고, 혁명 내지는 항일투쟁의 경험이나 전쟁경험뿐만 아니라 군사경험까지도 전무하기 때문에 인민군에 대한 김정일의 권위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공식승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유훈통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수령이란 구호와 더불어 그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간부의 표징이라는 원칙하에 항일투사 유자녀, 전쟁유자녀 등 혁명가계 혈통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상검증과정과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군부엘리트를 등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군부엘리트들 적어도 1·2세대는 고도의 동질감과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이들을 버팀목으로 삼아 위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2세대들은 김정일체제의 수립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고의 사회·경제적 배경 소유자가 되었고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승진인사와 특혜제공 등을 통해서 군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무마시켰다. 1998년 이후로는 선군정치로 군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군부엘리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김정일의 정당성여부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김정일에 의해 임명된, 즉 김정일의 친인척, 근무연고자 또는 승계과정에서의 공신들로 구성되어 충성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에 의해 진급되었다 하더라도 1·2세대에 비하여 김정일과의 관계망이 약한 3세대의 경우가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여지가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거부할 줄 알았던 소련의 지배엘리트들도 전환기에 신속하게 러시아의 신흥엘리트로 전환하였다. 구지배엘리트들은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한 ‘국가 사유화’를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보장받으려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한 개혁과정 중에 지배엘리트의 교체를 통해 구지배엘리트보다 다소 개혁적인 경제관료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 군부엘리트도 기득권의 보장이라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혁명 1·2세대와 다른 성향을 가진 혁명 3세대의 등장으로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북한 군부엘리트의 변화 가능성을 톨리(Tilly), 프리먼(Freeman) 등의 자원동원이론으로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해 보았다.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의 기본가정은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사회운동의 발생이나 전개과정은 축적된 사회적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³⁶⁾ 따라서 자원동원이론은 ① 집합행동은 합리적이며, ② 그 목표는 제도화된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에 의해 규정되며, ③ 갈등으로 인한 불만은 모든 사회에 산재해 있으므로, 사회운동의 형성은 자원, 조직, 기회의 변화 등에 의해 결정되며, ④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조직이 현대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⑤ 집합행동의 성공은 전략적인 요인들과 정치과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설명된다는 등의 내용을 요지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원동원이론에 따르면 기존 체제의 불평과 갈등은 대화채널과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 조직지도부, 지도부를 따를 수 있는 참여자가 있어야 표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북한군부의 특성을 적용시켜 보면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도 전망할

36) 임희섭, 앞의 책, 85쪽.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톨리(Tilly), 프리먼(Freeman) 등의 자원동원이론에서 첫째, 군부는 대화채널(의사소통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군부는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셋째, 군부는 정치세력을 조직하고 운영할 지도부가 있는가? 넷째, 군부의 뜻을 따라줄 참여자가 있는가?라는 네 가지의 기준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군부는 대화채널(의사연결망)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책결정도 로동당 독재체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사정책결정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두 체계가 북한군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채널인 것이다. 북한 군부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은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³⁷⁾ 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당 4기 5차 전원회의(1962. 12)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규약상 군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의 지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 이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김일성 수행, 공식활동 등에 참석하였으나 간헐적이었다. 이에 비해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채택시 설치된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인 군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직함을 사용한다는 점과 국방위원들이 김정일을 수행하는 횟수가 많다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³⁸⁾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기구를 통한 정책결정보다 실무적인 핵심인물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군사정책결정기구가 집단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결정권은 김정일 1인

37)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11명)은 차수 조명록, 차수 리용무, 상장 리용철, 차수 김영춘, 차수 김일철, 차수 이하일, 차수 김익현, 차수 박기서, 최룡수, 백세봉, 대장 김명국이다.

38) 전계이, 앞의 논문, 286~295쪽.

이 갖고 있으나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위원들 간에 합의된 의견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측근 수행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김정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의 기획부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원화되어 있어 주요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였고 집행부서인 인민무력부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³⁹⁾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당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 인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고 1992년 4월에는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명목상으로는 영향력이 더 있었으나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국방위원회가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도 군 직책을 통해 인민군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다. 군의 주요권력기구를 장악한 김정일은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해당부서에 직접 지시와 집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당과 군 내의 협의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직접 개별비서를 통해 명령을 하달하고 주요 부서를 직할 통치함으로써 권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국가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켰고 고위엘리트들 사이의 의사소통 기회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⁴⁰⁾

1998년 9월 헌법개정 이후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선군정치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군부의 정치·사회·경제적 역할은 강화되었고 신분도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반적인 역할 강화를 실질적으로 군대의 권력강화나 자율성의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 군의 위상강화는 군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

39)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79~81쪽.

40) 김성철 외, 『김정일연구: 리더십과 사상(1)』, 통일연구원, 2001, 21쪽.

디까지나 김정일이 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일은 군부의 위상강화와 병행하여 군부에 대한 통제체제도 강화시키면서 군 조직을 직접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군정치 이후 달라진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선군정치 이전의 군 조직내 총정치국의 위상은 최고 인민무력부와의 관계에서 현재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선군정치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총정치국이 인민무력부와 대등한 병렬적 관계이거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¹⁾ 또한 군 총정치국 간부의 위상도 상승하였다. 주요행사시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부장 보다 높은 서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총정치국의 위상 강화는 군내에서 정치통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군대내 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이상에는 정치위원을, 대대/중대급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부대지휘관의 사업을 조정·통제하였다. 특히 군 부대장비의 이동 및 훈련시 총정치국 간부 전원이 서명을 해야 하는 부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군부내의 반체제 동향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보위사령부를 통하여 군대내 비밀 정보수집 및 사찰기능을 강화하고 총정치국을 위시한 군과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동향을 직접 파악하였고, 호위사령부 보위국과 평양방어사령부 보위국 등을 통해서도 군부를 비밀감찰 하였다.

이처럼 김정일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군을 핵심기반으로 삼아 중시하지만 군의 위상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군부를 직접 장악하였다. 군부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필요성은 김정일이 소련과 동구의 붕괴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일은 현지도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41)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 변화」, 『국방정책연구』 2001년 겨울호, 한국국방연구원, 147~149쪽.

등 군부의 고위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들을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⁴²⁾ 군부 주요인사들 간의 의견 교류도 차단시키고 있다. 만일 이들이 집단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단체 의견을 규합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군은 김정일의 핵심권력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군총정치국, 군당위원회, 군보위사령부, 청년동맹 등으로부터 중첩적으로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김정일은 군부엘리트와 자신과의 개별적인 관계망을 중시하면서도 군부엘리트 간의 의사연결망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둘째, 군부는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북한군사조직은 강력한 단일군식 군제와 군사 및 정치계통의 2원적 지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권한은 국방위원장 1인에게 귀속되어 있다.⁴³⁾ 총참모부 예하에 지상군 수개 군단과 이와 동격으로 기계화, 전차 및 포병 군단 등이 존재하고 역시 동격군으로서 해·공군사령부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군식 군제는 군사역량의 효율적인 집중과 일사불란한 지휘가 장점이다. 따라서 군 내에서의 정치적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은 당규약 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규정하고 군·당 2원 체제에 따라 군에 대한 감시와 당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어 정치세력을 조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선군정치에 따른 군 위상의 강화로 군수산업, 군사·안보 등 군 관련 사항에 대한 군의 정책적 영향력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으나 군의 모든 통수권을 김정일 1인이 독점하는 조직의 특성상 군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의 군 통제가 강화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군사조직 하에서 반체제 세력이 규합될 수 있을

42) 김성철 외, 앞의 책, 12~13쪽.

43) 장명순, 앞의 책, 182~183쪽.

까? 북한군사조직의 특성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반체제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엘리트들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밑으로부터의 봉기보다는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군부엘리트 주요인물의 성향을 통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의 생성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표 3> 북한 군부엘리트 관계망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군부조직은 김일성 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혁명 1·2세대는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던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서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등에서 김부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육성된 뒤 등용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체제에 대한 배신이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면 북한군의 엘리트 상호간 횡적관계는 김정일과의 종적인 관계를 보완·강화하는 보조적인 관계로 보여진다.

북한군 엘리트 상호간의 연대감보다는 김정일과의 연대감이 보다 중요한 관계일 것이라는 추론은 북한군 엘리트의 군별 특성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북한군 엘리트는 특정 군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보병·포병·기갑·해군·공군·특수전과 같은 전투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에서 군사정책, 작전, 인사/조직, 군수, 선전선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있어⁴⁴⁾ 군부엘리트 간의 관계망은 약하다. 반면에 6군단 반체제사건 등 반체제 조짐에 대한 군부의 즉각적인 직보체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일과 군부인사와의 개별적인 연결망은 약하지 않다.

그리고 혁명 3세대가 김정일과의 개별적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2세대보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1세대와 유사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폐쇄적인 환경이란 특히 교육환경을 말하는데, 3세대의 경우는 북한내 주요 군관학교인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책공군대학, 김정숙해군학교 등에서 북

44) 김병조, 앞의 논문, 68쪽.

<표 3> 북한 군부엘리트 관계망

서열	서명	계급(연령)	세대	만경대명원	김일성명원	김일성사합학	기타	군별	출신지	김부자와의계	직책
1	김정일	원수 (61)		√	√				소련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2	조명록	차수 (75)	1	√			소련공군대학, 만주비행학교	공군	중국 연길	김일성 호위전령	총정치국장, 국방위 제1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
3	김영춘	차수 (71)	2	√		√	소련푸른계 군사학교	작전	평북	오극렬 계열, 6군단반체제 사건 적발	국방위원, 총참모장, 당중앙군사위원
4	김일철	차수 (73)	2	√			소련해군대학	해군	평양	김정일 친척	인민무력부장, 국방위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
5	리을설	원수 (83)	1				소련군사 아카데미		김책	김일성 호위병	호위사령관,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
6	백학림	차수 (85)	1				강건종합군관 학교, 소련군사아카데미		남만주	김일성 전령	인민보안상,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
7	리용무	차수 (80)	1						평남	빨치산대원/김정일 친척	국방위 부위원장
8	김익렬	차수 (83)	1				김일성고급당 학교		황북	빨치산 대원	당 민방위부장, 당 중앙군사위원
9	리하일	차수 (68)	2	√	√		소련군사아카데미	군사 정책/작전	양강도	김정일 수행	당 군사부장, 중앙군사위원
10	전계선	차수 (67)	2	√		√		보병 작전	평양		1군단장
11	박기서	차수 (74)	2	√		√		기갑	평양	김정일 친척	평양시 방어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
12	리종산	차수 (81)	1					군수	만주	빨치산 대원	군수동원총국장
13	현철해	대장 (68)	2	√			루마니아공과 대학	정치 장교	중국 연길	김정일 신임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서명	서명	계급 (연령)	세대	민중대학 원	김일성 대학	김일성 사범대학	기 타	군 별	출 신 지	김부자의의 계	직 책
14	박재경	대장 (61)	3	√					함북	김정일 수행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15	장성우	차수 (68)	2			√			강원도	김정일 친척	3군단장
16	원용희	차수 (62)	3	√					평북	프론트 군사 쿠데타 적발, 김정일 경호	보위사령관
17	리명수	차수 (58)	3	√		√			작전	김정일 수행	총참모부 작전국장
18	김윤실	대장 (64)	3								해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	오금결	상장 (56)	3	√			김책 공군대학, 소련 군사유학				공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출처: 국방정보본부, 『북한전략정보자료집』, 2003, 47~48, 211~213;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2000, 616~619쪽; 김병조,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 변화와 전망』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1997, 67쪽; 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id=M03010800(국가정보원 북한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의 자기식 군사전략과 주체사상을 학습한 토착군인들이므로 외국의 유학 경험이 없음을 의미한다.⁴⁵⁾ 또한 최근 군부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대장 박재경과 대장 리명수 등은 모두 김정일에 의해 진급된 자들로서 김정일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수행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3세대들은 김정일과의 관계망 약화와 관계없이 진급과 신임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김정일 지시에 맹목적인 충성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 일어났던 몇 안되는 쿠데타도 군부엘리트들에 의해서 자

45) 김병조, 위의 논문, 61쪽.

체적으로 차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3세대의 대표주자인 원웅희가 1993년 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출신들의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적발하여 김정일에게 직보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북한 군부엘리트가 외형적으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집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응집력의 근원은 엘리트 내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김일성·김정일과의 관계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지거나 정치세력화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기보다는 김일성·김정일과의 종적관계를 보다 중요시 한다. 이들은 김정일에게 밀착되어 개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의 사병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확실한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군부엘리트가 반체제 세력을 규합하는 조직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군부의 지도층은 김정일 체제의 핵심 지주이자 통치기반으로 김부자 우상화 및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섰던 세력이었고 김정일과 운명을 함께 한다고 자부하는 집단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변질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부 1·2·3세대는 공히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체제전환에 적극 앞장섰던 소련의 지배엘리트와는 달리 체제가 전환되면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극렬을 비롯한 혁명 2세대와 김정일 사이의 결합은 김일성과 빨치산 동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중심의 공감대와는 다른 이익중심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역시 간과할 수 없다.⁴⁶⁾ 이렇게 본다면 1·2세대에 비해 개인적인 관계망이 약한 김정일과 3세대의 결합도 이해관계에 의한 결합에 더 가깝다. 따라서 만약 진급에 의한 불이익이나 권력다툼 등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제3세대와 김정일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김부자와의 관계망이 약한 3세대는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을 재고하게 될 것이

46)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와 북한군부」, 『국방강론』 제2집, 1990, 378쪽.

다. 그렇게 된다면 제3세대가 반김정일 내지는 반체제 성향을 가지는 정치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통제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고 있고, 혁명 1·2세대가 아직 군부엘리트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3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정치조직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셋째, 군부 내에는 정치세력을 조직하고 운영할 지도부가 있는가?

이것은 현재 김정일에 의해 행사되는 군 통제권에 대해 배타적이고 대안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대항자 또는 대항자동맹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항자 세력은 소외된 자의 형태로 현실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항자가 언제 급격히 확산되거나 또는 동원화되는가 하는 문제이다.⁴⁷⁾ 찰스 킬리에 의하면, ‘확산’과 ‘동원화’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정치조직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권력과는 상치되는 변혁적인 목표를 지닌 집단의 확산이다. 두번째의 경로는 대항자들이 정치조직의 존속과 양립할 수 있는 목표로부터 정치조직의 파멸을 예고하는 목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⁴⁸⁾

북한체제의 태생은 군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항일유격과 6·25전쟁에서 김일성과 동고동락했던 빨치산들이 북한정치체제의 태두였고 북한군부의 핵심세력이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체제에 상치되는 집단의 확산은 적어도 빨치산 제1세대와 빨치산 직계가족이 주류인 제2세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김일성 사후를 대비한 장기간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반대파 숙청을 통해 당·정·군부의 권력층 내부에는 오직 김정일 친위세력만 존재할 뿐이고,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세력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군부의 핵심에는 혁명 1·2세대들이 점유하고 있고 이들은 세습정치를 당연시하므로 정치이념상이나 지휘체계상 갈등이나 암투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⁴⁹⁾

47) 찰스 킬리, 앞의 책, 271~272쪽.

48) 위의 책, 272쪽.

49) 김구섭 외, 『북한군부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1997, 112쪽.

혁명 3세대도 김부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는 약하지만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군 승진인사를 통해 발탁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개별적인 연관성이 약하다보니 김정일의 신임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충성심은 거의 맹목적이고, 3세대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⁵⁰⁾ 최근 김정일의 측근 수행요원으로 부상한 박재경, 리명수 같은 인물이 3세대의 핵심세력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항일투쟁과 전쟁경험이 전무하여 실추되었던 김정일의 권위는 전후세대인 3세대의 등장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1·2세대에 이어서 3세대도 김정일의 측근세력으로서 군을 ‘김정일 군대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세대의 일탈행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보수강정파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고르바초프를 내쫓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두 고르바초프가 임명했던 심복들이었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경우 심복들과의 관계망이 1970년대부터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다져온 김정일과 군부엘리트와의 그것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3세대는 김정일이 군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서 김정일과의 관계가 가까워져, 1·2세대에 비해 관계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소련군부의 쿠데타와 같은 반체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두 번째 경로를 통한 김정일체제에 대한 대항자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 북한상황에서는 무리다. 김정일의 통치체제가 아직까지는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항자가 나타나더라도 대안 세력이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김정일체제를 주도할 리더는 쉽게 나올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김정일은 특정인에게 군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다. 당에 속한 군엘리트보다 야전군 출신의 엘리트를 중시하고 우선적으

50) 전계이, 앞의 논문, 294~295쪽.

로 진급시켜 중앙에서의 군부엘리트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야전군 엘리트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규합을 차단하였다. 즉 김정일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 각군 조직을 병립화하고 각 조직으로부터 직보체계를 확립하여 공식활동시 각 군조직의 최고위층과 실무담당자들을 2중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각 군조직 간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의 세력화 방지, 충성경쟁 유도, 조직내 상하 수직적 견제·감시로 정권불안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군부엘리트 각자는 각각 원자화(原子化)됨으로써 관계망을 형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군부엘리트의 주요인물은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한 핵심 지시세력이자 군조직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군부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군부의 뜻을 따라 줄 참여자가 있는가?

이제껏 군부의 열성적인 후원자는 김정일이었다. 군부는 김정일의 지원으로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김정일은 군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먼저 반기를 들겠는가? 정권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는 합의된 군부엘리트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책임을 질만한 어떤 행동을 하기 힘들다. 설령 군부의 반체제세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⁵¹⁾

참여자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상응할 때 정치세력을 형성한 군부의 뜻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현 체제에 대한 만족도, 변화이후의 득권 보장여부, 변화의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군부의 일탈행위에 가담할 참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참여자가 모두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체제를 바꾸려는 주민들과는 달리 기존 체제 내에서 순응하려는 성향이 있고 향후 변화될 체제가 더 좋은 체제일 것이라는 확신도가

51) 임희섭, 위의 책, 100쪽.

질 수 없다.

김정일체제가 정치적 혼란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군부가 김정일에 이반(離叛)하는 형태의 정치개입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현재 군부의 지도층은 제1세대나 2세대를 막론하고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성장한 세력이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최후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세대의 경우 김부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망은 약하지만 김정일에 의해 진급된 자들로 김정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출신배경, 성장과정이 모두 김일성 부자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김정일과 군부사이의 연결망이 강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의한 응집력이 형성될 수 없다. 특히 김정일은 군부내 요직 상당수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채웠다. <표 3>의 군부엘리트 19명 중에서도 12명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다. 김정일은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혁명무력의 핵심골간이자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방패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들과의 유대는 강한 편이다.⁵²⁾

또한 참여대상자들은 <표 3>의 직책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방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에 포진하고 있어 조직구도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구성면에서는 중복되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과의 관계망을 쉽게 끊을 수 없다.⁵³⁾ 설령 참여자들이 응집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그들이 반체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정일의 핵심 측근으로 추정되는 대장 박재경, 대장 원웅희, 대장 리명수 등을 제외한 제3세대의 상장급 이하에서는 아직 김정일 세력으로서의 구분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고 있는 중이므로, 희박하지만 군부의 정치개입이 일어난다면 일탈행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⁵⁴⁾

52) 『김정일 선집』 1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82~390쪽.

53) 김병조, 앞의 논문, 62쪽.

54) 육군사관학교, 『북한군사론』, 박영사, 2001, 125~127쪽.

4. 결론 및 전망

북한 지배엘리트를 사회주의국가의 전형인 소련의 지배엘리트와 비교해 본 결과, 지배엘리트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배엘리트는 당과 밀착되어있다는 점, 국가가 지배엘리트의 충원을 계획하는 폐쇄적인 기득권 집단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소련과 구분되는 북한 지배엘리트의 특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배엘리트 내에서 군부엘리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력서열에 있어서도 군부엘리트가 상층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즉 군부엘리트가 지배엘리트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소련과 달리 북한에서는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맞물려 군부엘리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중심체제인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수령중심체제로 운영되는 북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김정일은 당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 군 실력자로서 북한체제를 지배함으로써 군부엘리트가 당 권력보다 김정일 개인권력에 더 밀착되었다. 즉 김정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령의 당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국가들이 중시하는 당 우위의 기능을 외면한 채 군부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당 우위’체제라고 하나 김정일이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당 우위’는 의미가 없어 보이며, 김정일이 당 대표와 군 최고사령관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한 북한 군부는 김정일체제 유지의 물리력으로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과 군부의 관계는 김정일이 ‘군은 나와 혈연관계’라고⁵⁵⁾ 언급할 정도로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55) 『조선중앙통신』, 1999년 4월 25일.

군부엘리트 역시 김부자 이상화 및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 서 왔고 김정일 체제 유지의 핵심세력으로 군림하면서 김정일과 운명을 함께 한다고 자부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경제난의 심화와 외부의 위협이라는 체제위기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북한 군부엘리트의 성향을 톨리(Tilly)와 프리먼(Freeman)의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체제전환시 연속성을 보인 소련의 지배엘리트처럼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북한 군부엘리트의 성향은 군부 내에 대화채널과 조직, 지도부 그리고 참여자 등의 여건을 갖추기에 부적합하였다. 즉 김정일이 당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제로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의 군 실력자로서 북한체제를 지배함으로써 군부엘리트와 김정일이 밀착되어 왔기 때문에 군부의 반체제 성향의 변질행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소련의 지배엘리트와 같은 변화주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북한 군부엘리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체제 내에서 핵심적인 지배엘리트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군부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김정일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권력실세로서 기득권과 특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엘리트는 당과 김정일의 지원세력으로서 김정일의 독재권력에 밀착되어 개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군부엘리트는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체제전환에 적극 앞장섰던 소련의 지배엘리트와 달리 체제가 전환되면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생각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변화를 기대한다면 밑으로부터의 봉기보다는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높는데, 핵심 지배엘리트인 군부엘리트가 이처럼 체제순응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는 어렵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오로지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북한 군부엘리트

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부엘리트가 반체제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군부엘리트의 성향 분석결과 김정일과 군부엘리트 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김정일과의 관계망이 약하고 관계유지기간이 짧은 3세대에 와서는 예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혁명 3세대가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아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는 있으나, 진급의 불이익, 권력다툼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1·2세대에 비해 약한 관계망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군부엘리트는 개혁·개방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체제유지노선과 군부실세로 등장하는 3세대 군부엘리트 이해관계의 적절성 여부가 북한체제 변화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11. 1,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군부엘리트 성향, 자원동원이론, 혁명 1·2·3 세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김정일

K C I

<ABSTRAC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Structure Transition Viewed in the Light of Military Elite Inclination

Lee, Mi-Sook

When examined U.S.S.R and North Korea ruling elite with comparative viewpoint, the social state universality to the ruling elite could detect. Those were ruling elite that be closely adhered party, be nation is closed vested right group plan supplement of the them.

On the contrary, North Korea ruling party feature can distinguish with U. S. S. R one. It is their proportion increasement in the ruling elite. At the order of authority, they occupy majority at the upper part is trend. This is the exact opposite phenomena U.S.S.R occasion. Hence, military elite was discontented ruling one role at the U.S.S.R. Hence, military one position is reinforced in gear with home and foreign crisis situation at the North Korea.

This phenomena is originated North Korea peculiarity that conduct chieftain-oriented structure than the other socialist state of party-oriented one. Kim Jeong-Il acted authority with party cause, in practical, ruled North Korea structure as military supreme commander, for the dictatorial one reinforcement, military elite further adhered his individual one than party one.

H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military role, neglected party priority function that socialist state makes great account of it for the defence chieftain, party and himself to external threaten. Therefore, military elite in the ruling one further adhered to the person, Kim Jeong-Il. So, even

though, North Korea is 'party priority' structure, this doesn't a meaning under the Kim Jeong-Il one man dictator system. North Korea military is to be reinforce as his sustaining tangible power under the his grasp of party representative and military supreme commander position.

The relation between Kim Jeong-Il and military maintained close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was based on personnel causal relations that he concerned "military is blood relationship with me". They also were the lead Kim and his son ideolization and succession system construction, dominated core force his regime sustainance, was vainglorious share destiny with him. At this context, he managed crisis with military role reinforcement, stand for military politics at the regime crisis situation to the economic difficulty deeping and external threaten.

When analysed this North Korea feature inclination with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by the Tilly and Freeman, the result is that transferring possibility is not high when regime transition days as transition initiative force as U.S.S.R ruling elite showed continuity. North Korea military elite inclination is not inadequate to prepare dialog channel, organization, leading group and participator, etc, in the military.

Hence, his as authority with party cause, in practical, ruled North Korea structure as military supreme commander, for the dictatorial one reinforcement, military elite further Kim Jeong-Il, it is consider that the military inclination toward anti-regime one is impossible.

In sum,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 military elite as transformation initiative force like U.S.S.R ruling elite. Because North Korea military elite firmly fixed core ruling one in the North Korea structure, they receive vested rights and privilege guarantee as actual power in the direct and indirect formated connection network with him. They adhere his dictatorial authority as his support force, will execute private military aide and policy one. So, they will be intend try to maintain structure when transformate, will be vested right lose than U.S.S.R ruling elite positively

acted transformation for the vested right guarantee. At the North Korea structure, feature, when expect transformation, upper part one is higher than bottom uprising. When military one s core one display structure adaptive inclination, it is difficult to change North Korea structure. So, he will execute practical one within maintaining regime scope, it is consider that he will utmost utilize military one in the such a process.

However, it is not perfectly exclude possibility that military one occur anti-regime behavior. As the analysis result of military elite inclination, the conflict possibility is low between him and them, but it can be occur unexpected situation at the 3rd generation that is relation network be weak and related period be short than former one of course, revolutionary 3rd one do blind devotion with his trust, it can be disconnect easily connection network than 1st, 2nd one when conflict occur by the promotion disadvantage, power struggle and the other interests etc. And military one will have anxiety that lose vested right by the openning and reformation. So, it can be act that appropriateness of interest is decisive factor between him future structure maintain line and 3rd one military one.

Key Words : Military elite inclination,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Revolutionary
1st · 2nd · 3rd Generation, North Korea Strcture Transition Possibility,
Kim Jeong-II